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영원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신을 초대 합니다.

새벽기도

매일 새벽 5시, 6시 “생명의 삶” QT로 진행
되며, 원하시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셀 모임

매주 금요일 여성 구역예배와 셀모임이
있습니다. 셀모임 자료가 매주 화요일에
올라오니, 예수/복음에 활용하세요.



영흥교회 셀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은혜가
보입니다”

주일예배

김성택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세요.



영흥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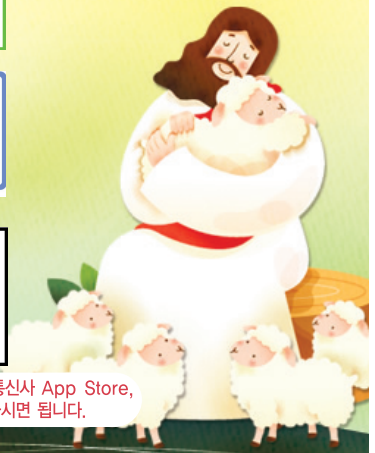
중보기도

영흥교인 여러분,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고
중보기도 요청에 같이 참여해 주세요.



영흥교회 중보기도

※ QR코드 사용 안내 : QR코드 App을 설치하시고(T스토어 등 이동통신사 App Store,
애플 App Store, 구글 Play 스토어) App으로 사진을 찍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어린이 훈련 캠프

- 일자 : 2013년 10월 3일 (목)
- 시간 : 09:00 ~ 16:00
- 장소 : 해솔학교 운동장

The Sonata – 행복한 예배자

- 일자 : 2013년 10월 6일 (주일)

2013년도 기관 찬양 대회

- 일시 : 2013년 11월 3일 (주일) 오후 3시
- 장소 : 영흥교회

영흥교회가 전하는 행복 이야기

살구나무

아른의 싹난 지팡이, 성막금촛대 등잔이 살구꽃 형상, 새 생명과 깨어남의 뜻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부찬양단

쭈니의 스케치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 가정, 안아름 권찰』 ...	2p
생명의 말씀 『소동성을 벗어나라』	5p
마르다의 밥상 『맛있는 샌드위치』	10p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파키스탄』	13p
『인도/파키스탄 여름단기선교, 문소정 학생』	16p
믿음생활faq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18p
나의 QT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송기식 협동집사』	22p
목회 칼럼 『가위 바위 보』	24p
살림의 여왕 『친환경세제』	25p
세레간증 『김민지/문종순/위연희/김지영』	26p
영흥소식 『실버대학 :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강지은/양현모/이재희』 ...	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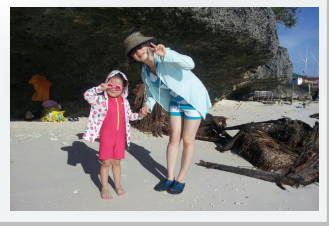
2013년 9월호

• 매체명 : 살구나무 • 발행인 : 김성택 • 발행일 : 9월 1일 (계간 가을호) • 통권 : 13-4호 • 발행처 : 영흥교회
• 편집인 : 문서선교부 • 제작/디자인 : 호산나미디어 • 문의 : 031-471-7822 www.youngch.or.kr

쑤니의 스케치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 가정

글 | 안아름 권철 취재 | 민은순 권철



할렐루야 ~!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자녀입니다.”라고 말 할 수 있어 참 행복하다. 크고 요란한 신앙의 체험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였고 나는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였고, 기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였다.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거나 마음이 착하기 때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며 미련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확실할 뿐이다.

어쩌면 양가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의 덕을 보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워 결혼 전 까지 반주자로 사용하셨고, 3대째 믿음을 지켜온 남편(이희정 성도)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4대째 사랑하는 딸 하숨이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대를 이은 신앙의 뿌리는 우리 가정이 신앙을 지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딸 하숨이는 모태적부터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자라다 보니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통해서 일까(?)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듯 하다.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 걱정하면 “엄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잖아.”하고 일침을 놓는 하숨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많았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14:14)”하신 말씀처럼 기도
하면 만사형통함을 굳게 믿고 자라가는 하숨이의 순수
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이
유를 알 것만 같다. 어느 봄날 길을 걸어가다 땅에 떨어진
꽃잎들을 주워 모으면서 하숨이가 말했다.

“엄마, 이 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거지?”

“응,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이 슬프겠다.”

“왜?”

“하나님이 만든 꽃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

그 동안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만
은 아니었다 보다. 떠돌고, 장난치고, 뒹굴
고, 뛰노는 와중에도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
고 지혜 주셔서 사라져가는 자연의 섭리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하숨이를 보며, 데리고만 다녀도 자녀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 영적인 아이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
한 내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아 감격과 뿌듯함에
내 영혼은 또다시 감사를 외친다.

얼마 전부터 하숨이와 유아용 큐티집 ‘쁘띠’

예배를 생각만해도

행복해지는

가정이 도기를 소망하며,



를 하고 있다. 아직 뿌피의 내용을 하숨이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재미있는 활동들이 주님을 얹에 더 즐겁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 저녁 진행하고 있다. 뿌피를 하면서 질문도 해보고 기도도 시켜보는데, 하숨이다운 발상과 기도로 한바탕 웃기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똥맞게 묻고 엉뚱하게 대답해서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과 함께여서 즐겁다.

“엄마, 하나님이 하숨이 마음속에 있잖아. 그치?”

“어, 그렇지.”

“근데 왜 하숨이 배가 무겁지도 않고 똥똥하지도 않아?”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하숨이가 참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잘 대답을 해줘야 할지 고민, 고민...

“어~~~, 하나님은 영이시라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서 하숨이

마음속에 있어도 배가 무겁지도 않고 똥똥하지도 않아.”

고개를 가우똥하면서도 “아아~ 그렇구나~!”라고 반응하는 하숨이...이렇듯 엄마를 놀라게도 하고 당황하게 하는 우리 하숨이...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많은 신앙 서적을 읽으며 조언을 구해보지만 예배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이 말씀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예배에 참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산교육이 아닐런지... 예배를 생각만해도 행복해지는 가정 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 가까이 가까이 주의 전으로 향한다.





소돔성을 벗어나라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을 떠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창세기 19:12~28

[롯이 소돔을 떠나다]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뜬것이라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폼페이의 화산폭발을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문화가 심각할 정도로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4,000년 전에 소돔성도 폼페이처럼 문란한 문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소돔성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돔성의 심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소돔성보다 나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돔성은 타락한 문화, 인간의 욕망과 쾌락으로 일관된 세상이었습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받고, 이웃집에 낯선 손님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성적 쾌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소돔성과 같습니다. 소돔성과 같은 죄와 쾌락에 빠져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소돔성처럼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기를....!

오늘 우리의 시대는 현대판 소돔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소돔성에 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돔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지 말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현대판 소돔성의 죄악을 과감히 단절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소돔성을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 19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 “성이 죄악 중에 멸망할 것이니 성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도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에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흠탕물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놀았다고 해도 흠탕물에서 놀았던 표시

가 남습니다. 내 옷에 진흙을 묻히지 않기 위해

서는 흠탕물에서 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대판 소돔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죄의 자리에서 떠

나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쾌락과 어울리면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러운 죄와 어울리면서 나는 깨끗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 한다면 결국 소돔성의 사람 들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며, 우리가 쾌락을 버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 갈 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떠나야 하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곳에 포기 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해도, 죄의 자리는 떠나야 하나님의 심판 에서 건짐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죄를 이기기 위해 소돔성을 떠나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소돔을 떠나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소돔을 떠나는 것을 지체 했습니다. 17절의 말씀 에도 “둘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라고 하시며 소돔성 주변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여러분...! 지체한다는 것은 죄악과 쾌락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 까...? 소돔성에서 즐겼던 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은 옛날의 죄악의 추억을 청산하고 못하고 끊어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쪽 발은 세상에 한 쪽 발은 믿음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두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체한다는 것은 세상의 정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체한다는 것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체한다는 것은 아직 소돔성에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지체하면 믿음의 성장의 장애물입니다.

지체하는 성도는 달구지 같은 성도입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끌어주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이 달구지 같은 신앙입니다. 고양이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지만 조금 귀찮게 하고 건드리면 물어버리고 할퀴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신앙입니다. 또 럭비공(football)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럭비공은 동그랗지



않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연(鰲)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이 분은 항상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것 같지만 꼭 세상의 끈에 매여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묶인 것에 쓸려 다니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죄와 쾌락에 우리는 미련을 갖고 지체합니다. 그러나 소돔의 죄악은 우리를 침범해 오고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성에 미련을 갖고 물들지 말고 소돔성에서 지체하지 말고 떠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떠난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죄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죄의 추억이 즐거웠기 때문에, 황홀했기 때문에 다시 즐기고 싶기에 뒤를 돌아보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죄의 추억은 그 어떤 것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죄의 추억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뿐입니다. 소돔성을 나오던 롯은 죄를 잊지 못하고 추억하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성도들은 죄의 더러움을 추억하지 말고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있다가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쾌락 속에 어울리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거리의 여인은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어거스틴을 불렀습니다.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저 몰라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은... “당신은 옛날 그대로 지만... 나는 더 이상 옛날을 어거스틴이 아니요” 어거스틴은 과거를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향락을 보고 삽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접하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세상에 대한 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정이 아니라 세상의 죄의 유혹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향응에 정이라고 생각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추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죄를 과감히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소돔성을 떠나야 합니다. 소돔성을 떠날 때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떠났다면 그 옛날의 일을 추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품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의 밥상 그 아홉번째 이야기, 맛있는 샌드위치

지친 여름, 딸아이의 위로가
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딸!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샌드위치 해줄게



글/취재 | 박정란 집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41:10)

무더운 한여름! 폭폭 삶을듯한 찜통더위를 자랑하는 중복과 말복 사이에 힘겹게
내 생일이 끼어있다. 지면의 뜨건 열기와 장마로 인한 눅눅한 습기가 만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범벅이 되는 터라 생일의 기쁨보다는 불쾌감이 앞선다. 그날도 간간히
찬물을 끼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딸이 편지 한
통과 작은 케익을 불쑥 내민다.

터운 일기 탓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심난한 일로 마음이 분주하였던 나는 딸
아이의 편지를 읽어 가며 무언가가 해소되는 듯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청량감이 들
었다. 약간의 오버스러운듯 경쾌한 행동과 높은 톤의 콧소리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인다고 나를 자부했는데 딸아이의 예리한 눈은 파닥파닥 힘겨워하는 나를 제대
로 보고 있었다.

쫄쫄... 어린 제 눈에도 세상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불안해
보였다 보다. 마냥 철다서니 없는 어린 아이로만 생각했던 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보니 부끄럽고 숙연해진다. 또 가슴 한편으론 작은 물결이 자꾸 요동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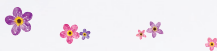
꾸밈없이 순진한 아이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다. 그렇다면 어른으로서 경험과 이성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나는...?! 주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한채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며 이성적인 생각을 앞세웠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경험을 우선시했던 내 모습들이 너무도 어리석어 보인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을 느낄 때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모두가 낙심하고 낙망할 때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며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말씀이 곧 믿음이 된다. 조그맣지만 야무진 입 매무새를 하며 강단있게 딸아이가 말한다.

“엄마... 힘들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 다 사라져~ 그리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과 용기가 생겨요. 엄마도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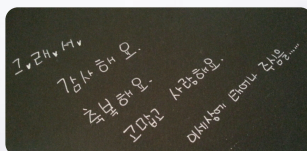
그 가녀린 목소리가 우레소리처럼 가슴에 와 닿는다. 고마워~ 딸! 오늘 간식으로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샌드위치 해 줄게~~!!!

편지 내용



Hi Mom! 엄마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둘째 딸이 엄마의 생신을 축하드려요~ 있잖아요~ 그게 아세요?! 저... 엄마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우리엄마. 엄마의 딸로 태어날 수 있어 진짜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신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 봐요. 제가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엄마와 함께 하길 소망해요.



맛있는 샌드위치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보아요~!



사과를 만난 달콤한 샌드위치

* 재료 : 사과, 오이, 삶은 달걀, 맛살, 마요네즈
(기호에 따라 설탕 추가)

- 1 사과, 오이, 맛살은 다지듯 쪼끔 썰어주세요
- 2 사과와 오이에서 나오는 물은 달걀이 잡아먹을 수 있게 넉넉한 양으로 삶아주신 후 골게 으개어주세요.
- 3 위의 준비한 재료를 함께 모아 마요네즈를 넣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 4 이제 빵을 살짝 구운 후 넉넉히 속을 채워 드셔보아요. 음~~ 달콤한 사과 향이 입안을 향긋하게 만드네요.

아침대용으로 스피드하게 만들어 먹는 오믈렛샌드위치



* 재료 : 양배추, 피망, 빨간 파프리카, 맛살, 계란,
소금, 케찹 (기호에 따라 핫소스)

- 1 양배추, 피망, 파프리카, 맛살은 다지듯 쪼끔 스피드하게 썰구요
- 2 계란에 소금을 넣고 잘 풀어 썰어놓은 재료를 투하 ~!
- 3 기름두른 팬에 식빵사이즈로 도톰하고 네모모양으로 오믈렛을 부쳐요
- 4 구운 식빵 양 안쪽에 케찹을 발라 주시고 오믈렛을 얹어 주세요. 꿀꺽~~ 4등분해서 예쁜 접시에 셋팅해 놓으면 카페 스타일브런치 같아 보여요 ~~

[Tip]

*기호에 따라 핫소스를 뿌려 드심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종주국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글/취재 | 이이미 집사



1. 알카에다 본거지인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오래 전 인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와 함께 하나의 나라였으나,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종교분쟁을 겪으며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에서 분리되어 "순수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파키’는 거룩한, ‘스탄’은 나라를 뜻하며

국기의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합니다. 파키스탄에는 자상 낙원이라 불리는 카슈미르, 세계 3대 장수춘으로 유명한 훈자지역, 동양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길깃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는 이슬라마바드이고 언어는 우르드어를 사용합니다. 인구는 약 1억 7천만명이고 이슬람이 98%, 기독교가 1%미만으로 전 세계 이슬람 선교사 파송에 힘을 기울이며 이슬람 선교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의 핵 개발기술이 이란과 북한에 수출되어 세계 여러 나라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작년 5월 사망한 오사마 빈라덴의 은신처였으며, 알카에다의 본거지로 아직까지 수많은 탈레반 양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탈레반 세력은 파키스탄을 순수 이슬람 국가로 세우고자 테러를 통해 국민들을 위협하며 파키스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 핍박받고 있는 파키스탄 교회

파키스탄의 교회의 대부분은 100년 전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 세워진 곳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슬람 지역과 달리 파키스탄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어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형성하며, 경제적으로도 하층 부류에 속하여 '하층민의 종교'로 인식되기에 무슬림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파키스탄은 '신성모독죄'라는 명목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법은 이슬람교를 폄하하는 표현에 대해 최고 사형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파키스탄에 현존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한번은 이 법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기독교인을 경찰이 풀어주었다는 이유로 500여명의 무슬림 청년들이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찾아가 공격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이슬람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폭력을 가하는 무슬림들에게 치하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어서 극단적인 이슬람세력을 끊임없이 양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의 순진함'이라는 반 이슬람 영화제 작자에 대해 파키스탄의 전직 장관이 현상금을 제시하였고 이 모든 상황은 고스란히 파키스탄의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무슬림에 의해 교회가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슬림의 핍박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파키스탄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3.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할 파키스탄

복음이 능력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교회들은 이슬람 사원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이들을 두려움으로 묶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의 교회들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을 부여하시고 전쟁과 테러의 고통, 생명의 위협에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복음을 받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종주국이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제목



1. 무슬림으로 가득한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 구별된 복음의 비빌병기로 일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파키스탄 현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2. 복음으로 무장된 청소년 세대의 헌신을 시작으로 파키스탄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파키스탄에 좋은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청소년 단기선교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여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다녀 온 문소정 학생(중1)의 간증문입니다.

글 | 문소영 학생 취재 | 이미미 집사

저는 파키스탄을 가기 전 인도 암리차르에서 이틀간 도시 사역과 검프(GUMP : Global Youth Movement Festival)를 했습니다. 검프 기간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거리행진 때 가장 은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 팀 600여명이 인도 암리차르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축복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매우 습하고 더운 날씨, 혼잡한 도로, 걷기 힘든 매연으로 우리를 방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찬양하며 현지인들에게 “We are Freinds”라는 수건을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주 덥고 힘들었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우리팀 모두에게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

땅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프 둘째 날 집회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게 하셨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신에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인도, 파키스탄 영혼들을 보니 너무나 그들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고, 우리들의 작은 사역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열매 맺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30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인도 국경을 지나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원래는 북부 훈자지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부에 있는 카라치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뀐 일정에 실망이 되었지만 그곳을 가게 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사역(현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림), 도시 사역, 문화 사역, 현지인 가정 방문 등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특별히 교도소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지만 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오히려 경찰들의 호위를 받으며 소년원과 소녀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죄인이었고 어린 자녀와 함께 교도소에서 지내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으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공연도 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며 희망 없이 살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더니 나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우리 팀 모두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때 이 곳 교도소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지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 하셨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6-17)

믿음생활faq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취재 | 문종순 성도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를 계속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명절 때만 보게 되는 먼 친척이 매년 당신의 명절을 망칠 수 있다. 골칫덩어리 가족 구성원이 날마다 불화와 좌절의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실천하기 힘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신다”는 대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껄끄러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더욱 힘들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에 반응하는 만큼만 그들을 가까이한다. 상대방이 우리의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를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사

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그분께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비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과 함께 생활해보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7절의 교훈들을 살펴보자. 이 교훈들이 제시되는 순서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 성경구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렇다.? “우선, 주 안에서 기뻐하라(4절). 그런 다음, 사려 깊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5절). 만일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기도하라(6절). 그러면 결국 평안을 맞볼 것이다(7절).”? 이 평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입장에 처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평안이 필요하다.

불쾌한 사람과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 지혜들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먼저 믿지 않는다면 이런 지혜들은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랑을 정의하는 고린도 전서 13장 4-7절은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 말한다. 사랑이 의지적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 때 더욱 분명히 드

러난다.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인내와 온유를 훈련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그에게 신실해야 한다. 마치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둘째,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어떤 면에서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신체적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걸음마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정신적 성인’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가지 정신적 미성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들의 문제와 약점을 감싸주지 않으면 그들은 발전할 수 없으며, 그들과 우리의 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절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및 감정적 미성숙과 약점을 용납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점을 늘 명심하라. 사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미움과 분노와 이기심을 증폭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승자가 되고 우리 모두는 패자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감정들을 경험할 것이다. 아마도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상처를 받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이다. 다루기 힘든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내 생각을 말하면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 아니면 더 악화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가?” 어려운 인간관계의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이다. 행동은 우리가 본능적 감정에 따라 사는지 아니면 사랑에 따라 사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의 연고자, 우리가 친구로 삼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마주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거나 심지어 우리의 원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

할 수 있다.

아마도 우리가 사랑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고통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정당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구속적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척하거나 그의 잘못을 얼버무려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를 돕는 것이다.

원수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의지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위선은 아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힘입어 원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따뜻한 감정에서 나온 것일 필요는 없다.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에서 나온다. “상대방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위선적인 것이라고 누가 비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따뜻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돕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정을 느낄 때가 올 것이다.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조안 영 & 벤티 그라운즈, 기독교 교양
(godpeople.com에서 인용)



나의 QT



“지금이라도
서로를 마주 보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글 | 송기식 협동집사

취재 | 최혜경 집사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랑한다고 말하자

[본 문] 에베소서 5:25, 28

25.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목 상]

한국의 40~50대 중년부부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69%, 남성은 41% 었습니다. 놀랍게도 70%의 주부가 살기 싫은 남편과 억지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농민교육원장 조관일 교수 "서비스에 승부를 걸자" 강의 중에서). 어느 방송 프로에 노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정답이 "천생연분"인데 할머니가 "평생원수"라고 대답해서 쌀 한 가마니 선물이 달아났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부가 평생 원수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떠합니까?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좀 다르다고,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부인이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책들과 내가 살아온 결혼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부간에 어때야 하는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첫째가

“사랑해”입니다. 한 경상도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버지 학교 숙제로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핀잔을 주던 부인이었지만, 남편이 꼭 안아주며 진심이라고 말하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 사례를 읽은 뒤로는 주기적으로 이 말을 하는데 저희 아내도 정말로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영흥교회 남자 성도님들 “여보, 사랑해”라고 수시로 고백하셔서 부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쁘다. 이쁜데...”입니다. 원판이랑 상관없이 이쁘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이쁘고 신비스러운 시기는 평균 15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부인을 계속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영흥교회 남자 성도님들(?) 빼고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 나 만나서 고생이 많아!”입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한다면 가장 감동적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남편들도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나한테는 당신 밖에 없어요” 학창 시절에 많은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백은 남편들이 살아가는 이

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빠 닮아서 똑똑하다”라고 합니다. 아 이들이 100점을 받으면 아빠 닮아 그런가 보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 당신 가문에 시집 왔어요~”입니다. 아내들이여, 나의 머리로 주신 남편을 잘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이상하면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인생이 된답니다.

부부의 행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을 일부러라도 해주며 행복이 가득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갈비뼈입니다. “사랑해”라고 말해 주세요! 아내들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으로 주신 남편입니다. “나한테는 당신 밖에 없어요”고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부부를 통해 천국을 맛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주 보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선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못 찾습니다.

목회 칼럼



가위 바위 보

글 | 담임목사 김성택

‘나인 와이브스’(아홉명의 아내들)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예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예쁘지만 무척 게을렀습니다. 그 남자는 부지런한 여자를 사모하다가 결국 얼굴이쁜 여자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지런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말하는 수다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없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너무나 사치스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마지막의 생애 끝에 한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위 바위 보다.”

‘가위 바위 보’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위, 바위, 보의 법칙을 비켜 갈 수 없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고, 장점이 단점도 되고, 단점도 장점이 됩니다. 결론은 “단점을 보면서 살지 말고 장점을 더 많이 보면서 살지”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 마음이 끌렸다가, 그의 단점으로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았다면 나는 어땠을 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단점 투성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제자들의 단점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우리는 그렇게 비아냥 떨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단점 투성이였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위 바위 보에서 지는 것을 보며 실망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가위 바위 보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장점을 보고 단점을 덮어주며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라고 불려지는 찬송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단점을 보시고 도리어 사랑하셨고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위 바위 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환경 세제 이야기

최근 "경피독" (일상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 물질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체내에서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란 개념이 이슈화 되고, 아울러 환경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기울어지면서 천연재료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재 | 문종순 성도

1 과일 잔류 농약 제거 → 수돗물 담금 세척

수돗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는 것이 가장 좋다. 식초, 소금, 숯 등을 물에 타서 씻는다고 농약이 잘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흐름물 세척법보다 담금물 세척법이 훨씬 우세하다.



2 주방 기름 때? →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물과 만나면 결정의 모서리가 부드러워져 물건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고 오염부분을 제거한다.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지방산 오염물질을 수용성으로 변화시켜서 쉽게 기름때를 닦아 낼 수 있도록 한다.



3 청소용 세제? → 식초

식초와 물을 섞어 준비한 식초물로 도마를 씻어 내면 도마에 밴 냄새가 제거 된다. 세제 찌꺼기나 변기 물 때 등에도 유용하다. 식초냄새가 걱정된다면 에센셜 오일을 1~2방울 섞어서 닦으면 좋은 향을 낼 수 있다.



4 세탁용 세제? → 무첨가세제와 구연산

구연산을 희석한 물을 욕실 청소 후 스프레이 통에 넣어 곳곳에 분사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며, 세탁 시 마지막 헹굼물에 구연산을 조금 넣어 주면 섬유유연제 역할을 해서 그냥 빨았을 때보다 옷이 훨씬 더 부드러다.



5 거품 안 나는 친환경 치약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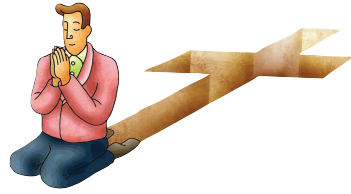
치약에 있는 계면활성제는 구강내의 점막 세포까지도 분해해 오히려 외부 세균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 색, 향, 맛을 내기 위해 에틸알코올, 포름알데히드, 암모늄 등의 화학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 친환경 치약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다.

인용 : 네이버 캐스트

세레간증문

세레간증문

김민지, 문종순, 위연희, 김지영



김민지 성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가 목사님의 말씀마다 은혜가 되어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따라 세례도 받고 주일마다 성당을 찾았지만 종교적인 뜨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시어머님이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주일 아침마다 알람처럼 교회 나오라는 재촉전화는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큰 아이를 임신하고 만삭이 가까웠을 때는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몸도

힘들어 차라리 쓰러져버리면 더 이상 나오라고 부르시지 않겠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계신 걸까?' '그냥 막연히 삶이 힘드니 신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닐까'란 생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한밤 중 찾아온 또렷한 악몽이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도 낯선 사람이 앉아 있고 앞에도 퇴마사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타시는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 하나님 없네' 라고 하여 '저 교회 다니는 데요' 하니 '아냐, 이 여자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퇴마사로 느껴지는 사람이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중에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두려움 마저 들었고 몸에는 심한 허리통증까지 왔습니다. 꿈의 내용을 시어머님께 말씀 드렸더니 믿음이 없

던 저를 위해 꿈에라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엄청난 힘을 체험했습니다.

시어머님의 교회가 너무 멀어 가까운 교회를 물색하던 중 동네에서 우연히 구역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어 영흥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눈 녹듯 녹게 되었고 감사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편히 먹고 잠 잘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도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말씀마다 은혜가 되어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걸려 왔지만 주변의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 기뻐하면 좋겠고 그들이 주님 따라 살아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며 복음을 전하러 노력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문중순 성도



이제 조금씩 나를 씻고, 나의 기복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섯 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와 집처럼 교회도 늘 그 자리에 있어 왔기에 당연하다고 느끼기만 했을 뿐... 간절함 없는 미지근한 저의 믿음은 세상에 성인이 되어 나설 때 쯤엔 오만한 독설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존재 자체를 의심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일만을 보며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논리적으로는 이해불가의 대상이라며 정신적 활동 정도라 치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것이 재미있었고 계산적으로 들어 맞는 것들에 충실하며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기에 저는 늘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족, 지켜야 할 대상이 생

기면서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고 두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설 수 있는 올곧은 존재이고 싶었지만 저는 나약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큰 행복을 돌보고 이끌어 나가고 지키고 싶었기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제서야 저는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을 알고 간절함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의 것과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특별히 긴 시간을 걸려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건 아닐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망설이는 나를 이끄는 힘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하지 않은 간절하고 절박한 깨달음이 제게도 순서대로 찾아 왔습니다. 늘 풀리지 않았던 의심들이 많아 교만했던 제게 “하나님은 우리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다”라며 깨닫고 이끌어 줄 멘토를 만나게 하였고, 예배 중 저건 가식이라 믿던 그 눈물을 저에게도 흘리게 하시며 기도를 하게 한 목사님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걸쳐 진정 저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은혜롭다”라는 말을 일고 쓸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인간을 세상에 내어 놓으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한 일들을 준비하셨을까? 가끔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우고 들었던 어린이 찬양이나 말씀들이 생각나면 어린 시절엔 의식 하지도 않았던 많은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었음에 그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혼자 생각해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무한의 사랑으로 제가 교만하며 방종하던 그 때부터 제자리로 돌아와 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과 힘을 빌려 그 능력을 미치게 해 주신 건지 새삼 감사하고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나를 씻고 나의 기복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준비하며 세상 것에 두려워 하지 않고 다시 태어날 나 자신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잠시 세상 것에 한눈을 팔고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사람들이 의심과 오만을 풀로 돌아오고 싶어도 멧쩍고 부끄러워 주저할 때 제가 받았듯 하나님의 능력을 미치게 할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위연희 청년



주님을 더욱 더 닮아 거룩해지고 주님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앙 간증을 할 수 있게 저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일곱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의무감에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몸과 마음 모두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던 저에게는 학업이나 놀고 즐기는 일이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과 나를 자주 비교하고 교만해지거나 때론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사실을 몰랐기에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주위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시간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혼자 품고 있던 미움, 자격지심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로 더욱 확고히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저에게 문제가 있고 험한 날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분의 일하심도 믿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온 저이기에 제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힘들 때 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더욱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아세례 신앙간증 김지영 성도



항상 밝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저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스런 딸 하연이에게

내 딸 하연아!

네가 태어난 건 정말 기적이다. 널 임신

한 걸 알기 전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둘째 계획 중이라고 말씀 드렸단다. 그런데 할머니 생각이 다르셨는지 집으로 찾아오셔서 당부하셨어. "애비 나이도 있는데, 무슨 둘째냐! 아들 하나나 잘 키워라.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든다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키울래? 낳는다고 다가 아니다" 엄마는 할머니 말씀에 상처를 받았단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하연이 널 임신한 걸 알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타박만 들어서었어.

며칠 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아기집은 주 수에 맞게 커져 있는데 아기가 보이지 않네요" 심장소리도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아무래도 이상임신인 것 같다는 것이다. 큰 병원으로 빨리 가보라고 하여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초음파로 다시 확인하는 중에 교수님이 "아기가 자궁 깊숙이 숨어 보이지 않았네요! 심장도 잘 뛰네요" 하시는 거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야! 교수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지. 아기가 정말 살아 있나요? "네 태반도 잘 형성되었고 심장소리도 괜찮네요" 그렇게 하연이 넌 엄마에게 기적처럼 왔단다.

원래 너의 태명은 찬동이었던단다. 찬규 동생 찬동이!



젊은 줄 알았던 널 다시 찾았을 때 엄마는 너에게 의미 있는 태명을 지어 주고 싶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환영 받지

않았다. 하연이 넌 아빠 붕어빵이지. 아빠 할머니 붕어빵이란다. 할머니 아차 실수하신 걸 아시고 엄마 몸조리까지 해주셨단다. 할머니는 섭섭할 만큼 첫째 찬규보다 하연이 널 예뻐 하시는 걸 느꼈단다. 또 엄마 외가는 멀어 아직도 널 보여 주지 못해 아쉬웠는데 교회식구들이 널 얼마나 안아주고 예뻐 해주는지 몰라.

못한 것 같아 숨었니? 언제나 사랑 받는 아이가 되라고 "사랑이" 라고 지었단다. 내 딸 사랑아! 하연아! 너에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어 엄마 너무 감사하다. 이 믿음 계속 지켜가길 바란다! 엄마가 널 위해 더욱 열심히 예배자리를 지킬게.

하연이 넌 엄마가 보기에 정말 사랑스런 아이야. 하나님! 제 딸 하연이가 태명처럼 늘 하나님 사랑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또 나눠 줄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항상 밝고 사랑이 넘치며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소서. 저희 가정 에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연이가 엄마 믿음으로 유아세례를 받는 거지만 사실 하연이가 엄마에게 신앙을 되찾아 주었던단다. 믿지 않는 아빠 만나서 엄마는 몇 년 간 교회를 다니지 않

아멘!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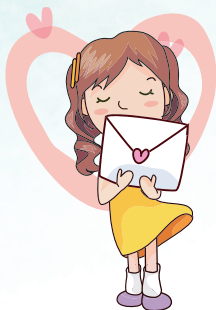
영혼소식

실버대학,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취재 | 이경숙, 이혜진 집사

실버대학에서 함께 나누었던 편지 내용을 올립니다. 딸이 엄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손주며느리가 시할머니께 드려진 편지는 그 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진심을 나눌 기회가 없던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강지은 권철

엄마, 사랑하는 나의 엄마!

편지를 얼마 만에 써 보는지 펜 잡은 지 두 시간도 더 지났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 지 모르겠어요. 엄마, 저 때



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도 아직 철이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바라는 대로 하라며 다그치면서 정작 저는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지 못하니 말이에요. 쇼핑을 가면, 시장을 가면, 맛있는 것을 먹으면 담엔 꼭 사드려야지, 모시고 와야지, 함께 맛있는 것 먹으러 와야지 하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잘 할 것 보다 못한 게 더 많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아쉽고,,,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아려요. 같은 여자이고, 어머니이고, 며느리이고, 딸이기 때문에 엄마의 길을 저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도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어요.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열심히 사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우리 가족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족 되어요. 아버지랑 행복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한 엄마, 아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분 사이 좋게 행복하게 지내시면 제 아픈 마음이 덜 할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불려도 불려도 또 부르고 싶은 우리 엄마.

딸 지은이 올림

양현모 성도

어머님, 저 원준엄마예요.

이렇게 어머님께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쑥스럽기도 하지만 먼저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막상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어머님이 이



번 년도부터 해당된다고 해서 사실 무척 놀랐어요. 제게 어머님은 항상 젊은 시어머님이자 원준이와 가운데이에게 멋쟁이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매일 아이들 생각에 잠시 어머님의 세월도 슬러 간다는 것을 잊었나 봐요.

우리 가족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 주변 사람들이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할 때마다 무척 낯 뜨거웠어요. 우리 가족이 1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머님의 희생이 제일 크다는 것을 잘 아는 저로서는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운 소리거든요. 살림 못하는 며느리 대신 집안 일 하시고, 아버지 챙기시고, 어린 손주를 돌봐주시고……하루도 편할 날 없이 부지런하신 모습 보면 제가 더 잘해야지 생각만 하고 늘 실천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지나는 말로 우리도 다로 편하게 한 번 살아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 늘 제가 맘 편하게 살지 못한다고 불평했는데 부모님께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불편하실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용돈도 풍족하게 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해드린 것 보다 죄송한 일만 너무 많네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늘 시어머님이라기 보다는 엄마처럼 다정하신 어머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며느리 현모 올림





이재희의 관찰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재희예요. 깜짝 놀라셨죠? 실버대학에서 활동하시는 할머니로 인해 편지를 쓰다니 영광입니다. 좋은 권사님들 지도 아래 복되고 좋은 경험들이 될 수 있는 실버대학에 할머니가 계시기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도 이런 좋은 기관이 있을까요?

세월을 되짚어 보면 벌써 시집은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항상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하신 할머니랑 대화하다 보면 어떨 땐 시할머니가 아닌 친구 같은 느낌도 많이 느꼈기에 할머니와 저와의 별명을 요새말로 절친이라 붙였지요.

할머니랑 함께 영흥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싹틀 수 있었고 저에게 교회에 “나가라, 왜 안 나가냐?” 라는 소리는 일절 안 하시고 언제나 뒤에서 기도하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자식들을 위해 오로지 기도해주시고 힘써주시는 할머니가 저희 집안에 계시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지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할머니도 아시죠?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는 것을요.

천국에 가시는 그날 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셨음 좋겠어요. 노력하겠지만 제가 언제나 좋은 친구 같은 손주며느리가 되어 드릴게요.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주며느리 재희 올림



살구나무 이벤트

오타를 찾아라

살구나무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오/탈자를 바로 잡아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 9월 30일 상품 : 선착순 5명

응모요령 : 쪽수, 틀린 단어와 바른 단어를 이메일로 제출

영흥 포토제닉

여름 휴가에서 찍은 사진을 응모해 주세요.

선정된 사진은 전시회 및 고급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응모기간 : 9월 30일 상품 : 고급 액자 전시회 : 11월 3일

응모요령 : 사진 제목, 사진 설명,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살구나무를 읽고

살구나무를 읽고 느낀 점, 바라는 점을 보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 10월 31일 응모요령 : 이메일 및 교회 사무실 (이경숙 집사) 제출

응모 및 결과

응모 방법 : yobchurch@gmail.com (이름, 전화번호를 같이 남겨주세요)

결과 발표 : 11월 3일 (교회 게시판과 홈페이지)



당신을
영흥교회로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흥교회는 행복한 예배자들을 위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 선교의 비전과 삶의 회복을 위한 **나눔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영성회복을 위한 **믿음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실천하는 **말씀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랑공동체**입니다.

영흥교회에 신앙운동은 신앙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당신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영흥교회 위치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7-5
대표전화 : 471-7822, 8922 / FAX. 472-3967
홈페이지 : www.youngch.or.kr

영흥교회 예배시간

새벽기도	1부	5:00	시온성전
	2부	6:00	본당
주일 낮	1부	7:30	본당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2:30	본당
삼일밤	오후	7:00	본당
금요심야	오후	9:00	본당
유치부	주일	11:00	유치부실
유년부	주일	11:00	시온성전
초등부	주일	11:00	초등부실
중고등부	주일	9:00	중고등부실
청년부	주일	9:00	청년부실